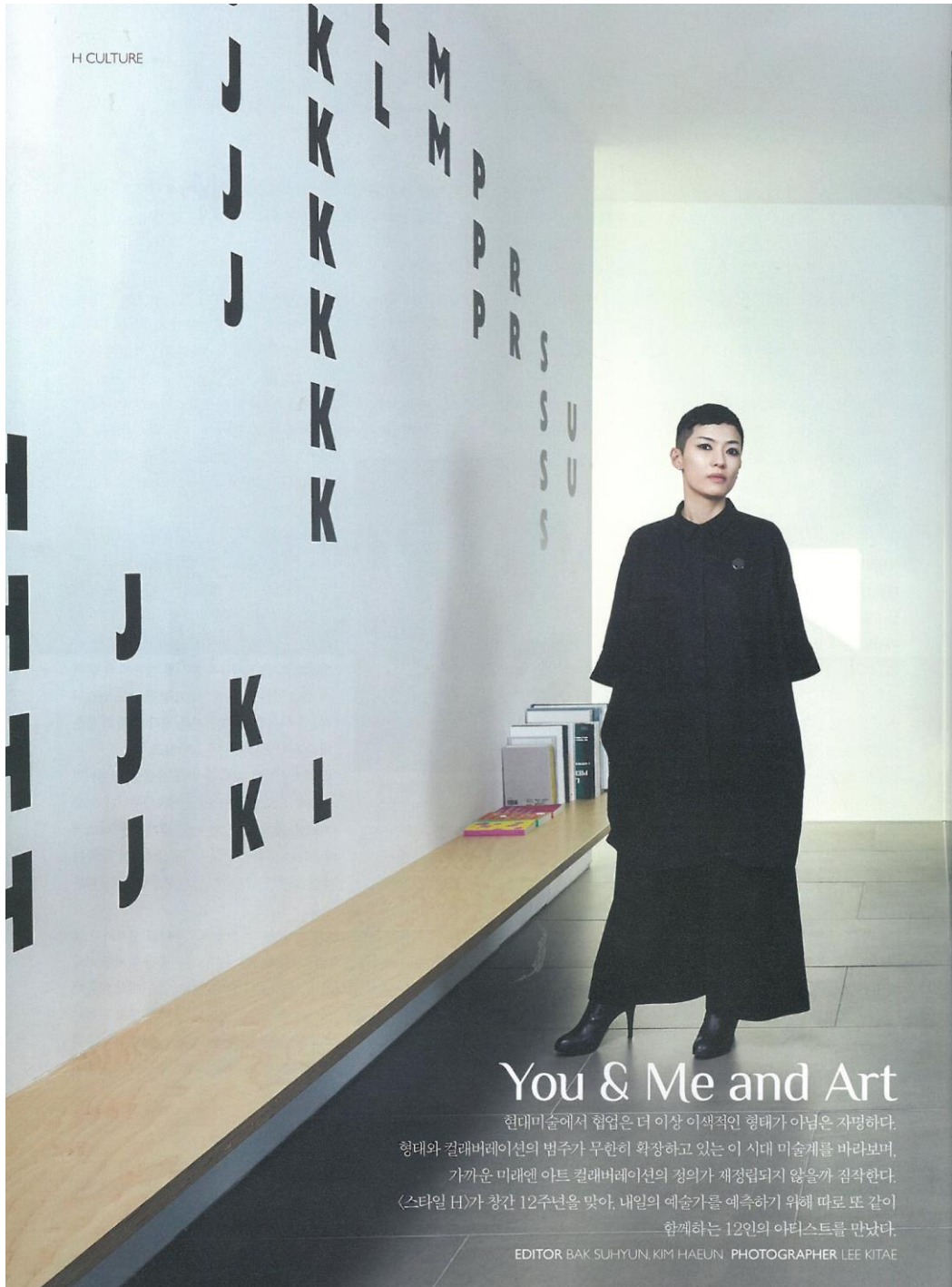


You & Me and Art

February, 2017 | Bak Suhyun, Kim Haeun

page 1 of 3



H CULTURE

You & Me and Art

현대미술에서 협업은 더 이상 이색적인 형태가 아님은 자명하다.
형태와 컬래버레이션의 범주가 무한히 확장하고 있는 이 시대 미술계를 바라보며,
가까운 미래엔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정의가 재정립되지 않을까 짐작한다.
(스타일 H)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내일의 예술가를 예측하기 위해 따로 또 같이
함께하는 12인의 아티스트를 만났다.

EDITOR BAK SUHYUN, KIM HAEUN PHOTOGRAPHER LEE KIT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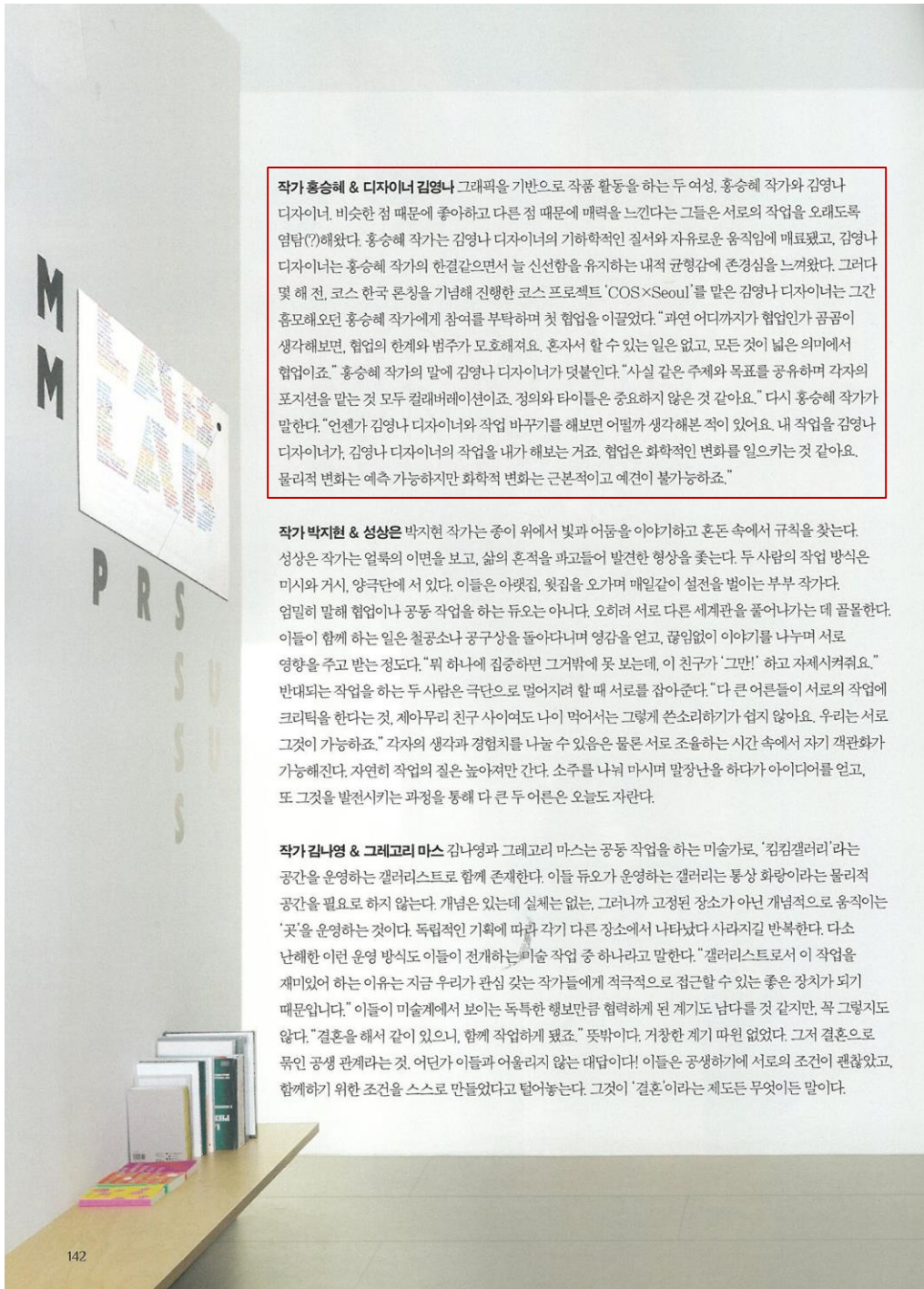
모호한 한계와 범주의 포용

"협업은 상대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요. 기획자가 프로젝트 참여 작가를 해석해 역할에 배치하는 것도 협업이고, 작가가 도구를 해석해 사용하는 것도 협업이죠.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저는 포토샵 개발자인 토머스 놀과 협업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작가 홍승혜

"몇 명의 그룹이 페이크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작가로 활동하는 프로젝트를 섬외래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전시에 참여하고, 텍스트를 쓰고, 예상치 못했지만 상까지 받고, 외부에서는 완벽히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지닌 작가로 인지됐어요.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과 상징성을 목격할 수 있었죠."- 디자이너 김영나



오른쪽: 홍승혜가 입은 타이 디테일 실크 블라우스는 지고트, 그 외는 본인 소장품.
왼쪽: 김영나가 신은 블랙 애플부츠는 레이첼 콕스, 그 외는 본인 소장품.
공간은 홍승혜 작가가 디자인한 가구와 김영나 디자이너의 윌&윈도우 그래픽디자인으로 꾸민 국제갤러리 아카이브룸.



작가 홍승혜 & 디자이너 김영나 그래픽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두 여성. 홍승혜 작가와 김영나 디자이너. 비슷한 점 때문에 좋아하고 다른 점 때문에 매력을 느낀다는 그들은 서로의 작업을 오래도록 염탐(?)해왔다. 홍승혜 작가는 김영나 디자이너의 기하학적인 질서와 자유로운 움직임에 매료됐고, 김영나 디자이너는 홍승혜 작가의 한결같으면서 늘 신선함을 유지하는 내적 균형감에 존경심을 느껴왔다. 그러다 몇 해 전, 코스 한국 론칭을 기념해 진행한 코스 프로젝트 'COS×Seoul'를 맡은 김영나 디자이너는 그간 흥미로웠던 홍승혜 작가에게 참여를 부탁하며 첫 협업을 이끌었다. "과연 어디까지가 협업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협업의 한계와 범주가 모호해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넓은 의미에서 협업이죠." 홍승혜 작가의 말에 김영나 디자이너가 덧붙인다. "사실 같은 주제와 목표를 공유하며 각자의 포지션을 맡는 것 모두 콜라보레이션이죠. 정의와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홍승혜 작가가 말한다. "언젠가 김영나 디자이너와 작업 바꾸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내 작업을 김영나 디자이너가, 김영나 디자이너의 작업을 내가 해보는 거죠. 협업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물리적 변화는 예측 가능하지만 화학적 변화는 근본적이고 예견이 불가능하죠."

작가 박지현 & 성상 박지현 작가는 종이 위에서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혼돈 속에서 규칙을 찾는다. 성상은 작가는 얼룩의 이면을 보고, 삶의 흔적을 파고들어 발견한 행상을 좇는다.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은 미시와 거시, 양극단에서 있다. 이들은 아랫집, 뒷집을 오가며 매일같이 설전을 벌이는 부부 작가다. 엄밀히 말해 협업이나 공동 작업을 하는 듀오는 아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세계관을 풀어나가는 데 골몰한다. 이들이 함께 하는 일은 철공소나 공구상을 돌아다니며 영감을 얻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다. "뭐 하나에 집중하면 그거밖에 못 보는데, 이 친구가 '그만!' 하고 자제시켜줘요." 반대되는 작업을 하는 두 사람은 극단으로 멀어지려 할 때 서로를 잡아준다. "다 큰 어른들이 서로의 작업에 크리틱을 한다는 것, 제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쓴소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그것이 가능하죠." 각자의 생각과 경험치를 나눌 수 있음은 물론 서로 조율하는 시간 속에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진다. 자연히 작업의 질은 높아져만 간다. 소주를 나눠 마시며 말장난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얻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 큰 두 어른은 오늘도 자란다.

작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는 공동 작업을 하는 미술가로, '김진갤러리'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갤러리스트로 함께 존재한다. 이들 듀오가 운영하는 갤러리는 통상 화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념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가 아닌 개념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운영하는 것이다. 독립적인 기획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다소 난해한 이런 운영 방식도 이들이 전개하는 미술 작업 중 하나라고 말한다. "갤러리스트로서 이 작업을 재미있어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관심 갖는 작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정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미술계에서 보이는 독특한 행보만큼 협력하게 된 계기도 남다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결혼을 해서 같이 있으니, 함께 작업하게 됐죠." 뜻밖이다. 거창한 계기 따윈 없었다. 그저 결혼으로 묶인 공생 관계라는 것. 어딘가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다. 이들은 공생하기에 서로의 조건이 괜찮았고,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털어놓는다. 그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든 말이다.